

退溪의 政治思想 研究**

李 元 述*

• 目 次 •

- | | |
|---------------------------------|------------------------------------|
| I. 서 론 | 3. 「戊辰經筵啓筭」에서 말한 保民
安邦의 中道政治 |
| II. 시대적 배경 | 4. 「聖學十圖」에 담긴 內聖外王의
王道政治 |
| 1. 생애와 인품 | 5. 「鄉立約條」에서 보는 鄉黨合意
의 自治相規 |
| 2. 시대적 배경 | 6. 「甲辰乞勿絶倭使疏」에서 주장
한 和解交隣의 平和外交 |
| III. 정치사상 | IV. 결 론 |
| 1. 「辭職疏」를 통해 본 義理尊重
의 賢能政治 | |
| 2. 「戊辰六條疏」가 제시하는 修己
治人の 道德政治 | |

I. 서 론

한국의 유학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韋庵 張志淵은 퇴계에 대하여 “그 正學을 천명하고 후생을 개도하여 孔孟程朱의 도를 환하게 우리 동방에 다시 밝힌 사람은 오직 선생 한 분 뿐이다.”¹⁾라고 하였다. 실로 한국의 사상사에서 퇴계가 차지하는 찬연한 위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전 영남대 정외과 교수

**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9호(1989) 게재논문

1) “其闡明正學，開導後生，使孔孟程朱之道，煥然復明於吾東者，惟先生一人而已。”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卷一.)

퇴계의 일생은 학문과 관직생활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가나 관료라기보다는 주자학자였고, 정치사상가라기보다는 철학자였다. 順菴 安鼎福이 “李先生은 平日 政치를 논한 文자가 絶少하다.”²⁾라고 말한 바와 같이 퇴계가 특별히 정치사상이나 이론을 전개한 일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의 학문은 주자학의 尊崇이요, 주자학은 유학의 宋代적 해석이기에 그의 학문은 어디까지나 修己治人이라고 하는 유학의 기본목적에 柢礎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은 修齊治平의 經世學이요, 주자학도 역시 하나의 정치철학이다. 퇴계의 저서중에는 간접적으로 정치사상과 관련된 저술이 많다. 문인인 鶴峰 金誠一은 퇴계의 “講筵, 登對, 疏筭, 陳論은 한결같이 聖學을 밝히고 왕도를 행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³⁾라고하여 그의 정치사상이 유가정치사상의 이상인 內聖外王의 왕도정치에 있음을 말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탁월한 유가적 정치사상가이기도 한 것이다.

근래 퇴계학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걸쳐 매우 활발하다. 특히 외국 학자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퇴계학의 연구경향은 주로 그의 철학과 문학방면에 치중되고, 經世學의 측면에의 접근은 아직 극히 미약하고 단편적일 뿐이다. 앞으로 이 방면의 본격적인 연구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본연구는 우리 나라 昨今の 서구편향적인 학문풍토에 대해 반성하고, 이로부터 탈피하여 우리의 전통사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진지한 천착을 통하여, 이를 토대로 한 새 시대의 민족문화를 창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퇴계의 정치사상을 探討하여 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退溪全書」, 「朱子大全」, 유교의 경전, 그리고 우리 나라 諸儒들의 문집들을 기초자료로 할 것이며, 특히 퇴계의 저술중에서 정치사상이나 이론, 그리고 시무책의 내용이 담긴 것, 그 중에서도 주로 疏筭를 중심으로하여 그의 정치사상을 분석 추출해

2) “李子平日論治文字絶少”(「李子粹語」, 凡例.)

3) “講筵, 登對, 疏筭, 陳論, 一以明聖學行王道爲本.”(「退溪全集」, 下〈서술,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 p.636.)

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자못 難澁한 일로서 힘에 겨운 시도이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하나의 문제제기로서의 의의만이라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우리의 정치문화 정립을 위해 지극히 조그마한 단서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II. 시대적 배경

어느 한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先代로부터 전해 오는 諸思想, 그리고 그 사상가의 인물이나 성정에 관한 이해가 앞서야 하는 것이다. 퇴계의 정치사상을 探討코자 함에 있어서도 먼저 그의 개인적인 조건, 즉 생애나 天稟은 물론이고, 그것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당시의 국내정세,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학계의 동향등이 그 주요한 것이라 하겠다.

1. 생애와 인품

퇴계의 일생은 그의 연보의 기록을 통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燕山君 7년(1501) 11월 25일 辰時에 禮安縣溫溪里 본가에서 탄생하여 宣祖 3년(1570) 12월 8일 酉時에 서거하였다.⁴⁾ 그는 궁벽한 산골의 평범한 사대부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가정환경이 유복하지도 순탄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평범 속의 비범이 퇴계로 하여금 퇴계답게 하는 터전”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퇴계의 성은 李, 名은 滉, 字는 景浩, 別號는 퇴계, 陶翁, 退陶, 淸涼人등이며, 貫鄉은 眞城이다. 선비의 일생은 대개 修學(幼而學之), 行道

4) 同書, pp 576~595.

5) 丁淳睦, 「退溪評傳」(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7), pp.13~14.

(壯而行之), 은퇴(藏而修之)의 3기로 나누어 진다. 퇴계의 생애도 역시 이러한 기준에서 3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초년기로서 출생으로부터 33세되는 해까지의 修學時期이고, 제2기는 중년기로서 34세에 급제 出身한 때부터 49세에 慶尙監司에게 병으로 辭狀을 제출하고 解官을 청한 때까지의 出仕時期이며, 그리고 제3기는 말년기로서 50세 되는 해에 監司의 허락도 없이 任所를 떠난 때부터 70세 서거까지의 은거·講學시기이다.⁶⁾ 그러나 出仕 중에도 修學은 있었고, 은거 講學하면서도 사직의 안위에 관심을 끊지 않았으며, 거듭거듭 致仕를 애걸했으나 운허되지 않고 끝까지 散職을 지닌 채 終生하게 되었다.

퇴계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自銘」을 지었다. 이것은 96字에 불과한 四言詩인데, 그의 70평생을 정리한 일대기이다. 그의 생애와 인간 전부를 가장 잘 集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나면서 크게 어리석고, 자라서는 병도 많아, 중년에는 어찌하다 학문을 즐겼는데, 만년엔 어찌하여 벼슬을 받았던고, 학문은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벼슬은 마다해도 더욱 주어졌네. 나아가서는 넘어지기 일쑤이나, 물러나 갈무림은 끈게 하였네, 나라 은혜 지극하매 부끄럽기 그지없고, 성현말씀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서노라. 산은 높고 또 높으며, 물은 깊고 또 깊도다. 관복을 벗어버려, 모든 비방 벗어났노라. 내 마음을 제 모르니, 나의 가짐을 뉘 즐길까. 생각컨데 옛 사람은 내 마음 이미 알겠거늘, 뒷날에 오늘 일을 어찌 몰라줄까 보냐. 근심 속에 낙이 있고, 낙 속에 근심 있는 법, 조화타고 돌아가니,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⁷⁾

6) 李相股, 「退溪의 生涯와 學問」(서울, 瑞文堂, 1987), pp. 13~14. 丁淳睦, 前掲書, p.36.

7) “生而大癡, 壯而多疾, 中何嗜學, 晚何叨爵, 學求猶邈, 爵辭愈嬰, 進行之路, 退藏之貞, 深慚國恩, 竄畏聖言, 有山巖巖, 有水源源, 婆娑初服, 脫略衆訕, 我懷伊阻, 我佩誰玩 我思古人, 實獲我心, 寧知來世, 不獲今兮, 憂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兮.” (「退溪全集」, 下, p.640.)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생애와 인품이 잘 표현되어 있다. 孔子는 이르기를 “군자는 도를 구할 뿐 밥을 구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릴 수 있으나, 배우면 저절로 祿을 얻을 수 있다. 군자는 도를 염려하되 가난을 염려하지 않는다”⁸⁾라고 하였다. 퇴계의 宦路도 자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당초에 과거에 뜻이 없었다. 그러나 가세형편상 出仕하게 되었으나 길지 않은 出仕期間을 거쳐 49세 때 豊基郡守 辭任狀을 監司에게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서거 몇 달 전 宣祖께 올린 最後辭狀인 「乞致仕狀」까지 21년 동안에 53회의 辭退願을 써 내었는데,⁹⁾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宦路에서 벗어나 학문과 講學에만 전념할 것을 切望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의 인품은 또 그의 언행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특히 그 진면목은 단적으로 그의 考終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庚午年 11월 9일에서 퇴계가 서거한 12월 8일까지의 1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 보면, 첫째로 그는 崇祖精神에 투철했다. 자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으로 時亨에 參祀했으며, 병이 위독했으나 外舅의 忌日이라고하여 고기 반찬을 들지 않았다.¹⁰⁾ 다음에는 학문적 정열과 정성이 대단하였다. 병세가 더욱 위독했는데도 奇明彦이 묻는 글에 그는 누워서 답을 썼는데 致知 格物의 해설을 고쳐서 보냈다.¹¹⁾ 또 그는 虛名과 虛禮를 배척하였다. 그는 遺戒를 쓰게 하여, 첫째로 禮葬을 하지 말 것이며, 둘째로 油蜜果를 쓰지 말 것이며, 셋째로 비석을 세우지 말고 조그만 돌을 쓰게 했다.¹²⁾ 또한 그는 국가안위에 대한 충정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8) “子曰, 君子謀道不謀食, 耕地, 餒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不憂貧.” (「論語」衛靈公篇.)

9) 李相股, 前揭書, pp.49~51.

10) “庚午十一月九日, 以時亨, 上溫溪, 齋宿宗家, 始感寒疾, 行祭時, 奉饋奠物, 猶親自爲之, 氣益不平, 子弟等告曰, 氣候不平, 則請勿參祭, 曰余今老矣, 行祭之日不多, 不可不參.”

11) “至十五日, 益彌留, 奇明彥專人平書問, 先生臥席修答, 改致知格物說, 令子弟正書, 奇明彥及鄭子中等處.” (同上)

초야에 물러나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국사를 걱정했다.¹³⁾ 그리고 그의 임종은 마치 생사의 문제를 초월한 듯 한 死如歸의 경지였다. 아침에 梅花盆에 물을 주게 하고, 酉時에 마지막 자리를 바꾸게하여 앉아서 서거하였다.¹⁴⁾

2. 시대적 배경

먼저 국내의 사정을 보기로 한다. 퇴계가 탄생한 燕山君 7년(辛酉)은 바로 史草問題로 생겨난 戊午土禍(1498, 연산군 4년)가 있는지 3년째 되던 해이다. 戊午土禍를 시발로 하여 甲子土禍(1504, 연산군 10년), 己卯土禍(1519, 중종 14년), 그리고 乙巳土禍(1545, 명종 원년)등 격렬한 당파적 갈등과 투쟁이 전개되는데, 이른바 조선조 초기의 四大土禍라 일컬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조는 건국 이래 통치원리로서 유교의 정치철학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世宗의 治世동안에는 유교문화와 민족국가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世宗은 집현전을 궁중에 두어 사림을 우대하였으며, 기본정치노선을 문화정치에 두어 왕도정치의 제도적 확립을 이룩하였다. 세종의 문신등용정책에 따라 실력있는 新進士類들이 많이 등용되었으니 이들 신진사류들은 대부분 鄭夢周, 吉再의 학통을 이어받은 節義派 사림들이었다.

조선왕조는 사림이라는 새로운 단위에 의해서 麗朝의 소수관료가 중심이 되어 좁은 통치과정에만 치우쳐 오던 것을 뛰어넘고 사림이라는 신흥지성인에 의한 정치문화의 폭을 확대하고, 정치적 비중이 하향적 통치과정에서 상향적 정치과정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정치

12) “四日命兄子寤，書遺戒，一毋用禮葬，該書循例請用，必稱遺命陳疏苦辭，一勿用油蜜果，一勿用碑石，只以小石，書其前面，云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同上)

13) “五日謂寤曰，臺諫所啓，今何如耶，寤曰猶不允俞，曰未知其終如何 再三嘆之。”(同書, p.862.)

14) “八日朝，命灌盆梅 是日晴，酉初，忽白雪盆集，宅上雲下寸許，須臾，先生命整臥席，扶起而坐逝，卽雲散雪霽。”(同上)

사에서 볼 때, 통일신라를 이끌었던 화랑이란 주체나 중세 고려를 이끌었던 호족육두품이란 주체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입장에서 근세 조선조를 이끈 사림이라는 주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림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동질적 정치단위이나 조선조의 성립과정에서 보면 신흥질서에 참여한 집권관인과 이에 불삼한 비판세력인 在野士林으로 양분되었으며, 이같은 이중구조는 역사적 전개에 따라 관인은 勳舊官人으로 되고, 사림은 新進士林으로 되어 新舊 대결로 치닫게 되어 결국은 土禍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사화는 “역사의 외면에서는 성숙된 兩政治單位(勳舊·士林)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하였다는 소극성, 역사의 현실에서는 정치의 현장에 있던 훈구세력이 현장으로 뛰어드는 신진세력을 억제하였다는 제한성”¹⁵⁾이라 하겠다.

守舊 권력층과 신진사림과의 알력에 기인한 戊午土禍로 사림의 重鎮이었던 佔畢齋 金宗直은 剖棺斬屍를 당하고, 그의 문도였던 寒暄堂 金宏弼과 一蠹 鄭汝昌은 유배되었으며, 많은 유학자가 피해를 입었으니 유림의 사기는 극도로 좌절되고 말았다. 퇴계가 4세 되던 燕山君 10년에는 또 甲子土禍가 일어났다.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궁중에서 밀려나 賜死된 일이 알려지자 이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빙자로 하여 많은 朝臣들이 화를 당하였다. 같은 해 가을에는 戊午土禍를 追論해서 寒暄堂은 陵遲處斬되고 一蠹는 剖棺斬屍의 변을 당했다. 이 春秋二회에 걸친 甲子土禍의 참상은 戊午土禍의 類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화를 전후하여 연산군의 폭정은 日益尤甚해 갔다.

그러나 연산군 12년에 드디어 中宗의 반정이 성공되어 전대에 사화로 피해를 당한 유학자들이 다시 조정으로 진출케 되어 道學 振作的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靜庵 趙光祖를 위시하여 많은 新進士類가 내외요직에 참여하게 되어 弊政은 급속히 刷新되고 민중의 교화 운동도

15) 崔昌圭, “退溪學과 韓國政治思想”, 「退溪學報」, 第19輯(서울, 退溪學研究院, 1978), p.282.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상적인 도학정치도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던 것이 신구세력의 부조화와 반목을 낳게 되고, 中宗 14년에 이르러 반대파의 참언으로 혁신적인 少壯派들은 참화를 입게 되니 靜庵은 賜死되고 많은 新進 氣銳의 少壯들이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희생되고 말았다. 이것이 己卯土禍요 퇴계의 나이 19세 되던 때이다.

그런데 퇴계는 또 하나의 사화를 당대에 맞이하게 된다. 中宗의 晩年에 이르러 繼妃를 둘러싼 외척인 尹任(大尹)과 尹元衡(小尹) 사이에 야기된 儒臣들의 화가 바로 明宗 즉위년에 있었으니 이것이 곧 乙巳土禍이다. 율곡은 그의 「萬言封事」에서 을사사화는 기묘사화보다 더욱 처참하였다고 개탄하고, 거듭된 사화 후의 나라 일에 크게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己卯年에 諸賢들이 약간 일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참소를 만나 참변을 당하였으며, 이에 乙巳土禍는 己卯土禍보다 더욱 참혹하였으니, 이로부터 사림은 생기를 잃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만 다행으로 여겨 감히 국사를 운운하지 못하니, ……국세가 날로 급박하고 國本이 날로 꺾어가는 것에 이르러서는 누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을 움직여 본 이가 있겠습니까”¹⁶⁾

이와같은 정국의 혼미속에서 민생의 궁핍과 민심의 악화는 극도에 달하였다. 퇴계는 戊辰年에 올린 經筵啓筭에서,

“은 나라가 소란하여, 었어진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 긴장한 자들은 떼를 지어 도적이 되고, 노약자는 구렁에 굴러 떨어져 죽으니, 아아, 나라의 근본이 어찌 동요하지 않겠습니까”¹⁷⁾

16) “己卯諸賢, 稍欲有爲, 而讒鋒所觸, 血肉糜粉, 繼以乙巳之禍, 慘於己卯, 自是士林, 狼顧脅息, 以苟活爲幸, 不敢以國事爲言, …… 至於國勢之日蹙, 邦本之日斲, 孰有一毫動念者哉.” (「栗谷全書」, 卷之五.)

라고 하여 탄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정세가 불안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주변 隣國으로부터의 外患은 어떠한가. 그것은 주로 南倭 北胡에 인한 것이다. 倭寇의 患은 거의 상습적이어서 倭船이 南海諸島와 연안에 출몰하거나 심지어는 내륙 여러 곳까지 횡행하여 邊民을 괴롭혔다. 三浦에 상주하는 倭人과 대마도를 근거지로 한 왜구가 언제나 말썽거리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퇴계가 戊午年에 黃仲學에게 보낸 답서에,

“남방에 바다의 흉악한 기운이 跳梁하니 그 근심이 적지 않다. 국가가 장차 무엇으로써 캄캄한 漆室의 嘆을 막아낼 것인지 모르겠다. 窮巷도 오히려 감당할 수가 없겠거늘 하물며 民社에 있어서랴.”¹⁸⁾

라고 한탄하고 있음만 보아도 당시의 倭患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北胡 野人の 患도 倭奴의 그것에 못지 않았다. 世宗 때에 北邊에 六鎭을 개척하고 서북변에도 四郡을 설치하여 鴨綠, 豆滿의 兩江邊의 국방을 엄하게 하였으나 그후 방비의 곤란으로 누차 廢郡 등의 변천이 있었다. 胡虜들은 陸戰이 그들의 長技이고, 騎馬 長驅하여 馳獵으로 일을 삼는지라 中宗 年間에는 그 入寇 作亂이 자심하여 그 화가 黃海, 江原, 심지어는 下三道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퇴계는 黃仲學에게 보낸 또 하나의 답서에서,

“이제 남북의 巨患이 아침 아니면 저녁으로 닥쳐들고 있는데, 둘러보아도 무엇 하나 믿을만한 것이 없으니 산림의 樂인들 어찌 반드시 보장될 수 있겠는가. 이로써 사사로운 근심도 그윽히 한탄됨을 어찌할 수 없거든 하물며 民社 百里之守를 어떻게 할 것인가”¹⁹⁾

17) “學國騷動, 顛仆者未起, 呻吟者未絕, …… 強壯則群聚而爲盜, 老弱則轉死於溝壑 哀我邦本寧不動搖.” (『退溪全集』, 上, p.194)

18) “南方將肆海氛之惡, 此憂不渺, 不知國家將何以辦, 得漆室之嘆, 窮巷尙不堪, 況有民社者耶.” (同書, p.471.)

라고 하여 당시의 外患을 걱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당시의 학계의 사정은 어떠하였던가. 퇴계 시대에는 經學, 性理學, 心學 같은 것을 爲己之學으로, 詞章之學, 科擧之學 같은 것을 爲人之學으로 알았다. 爲己之學이란 인간되기 위한 학문이요, 爲人之學은 출세하기 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유교에 있어서 학문과 벼슬은 서로 반대되거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修己와 治人은 서로 본과末, 先과 後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 「論語」에서 孔子는 “학문하면 祿이 그 가운데 있다”²⁰⁾하였고, 子夏는 “벼슬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문하고, 학문을 해서 여유 있으면 벼슬한다”²¹⁾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孔子는 고급의 학자가 학문하는 동기에 있어 不同함을 지적하여, “옛날의 공부하던 사람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했으나,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은 남에게 알리기 위해 한다.”²²⁾라고 했듯이, 퇴계 당시에도 거둬드는 사회를 치루면서 학계는 벼슬이나 하기 위한 학문풍조가 팽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 정치권력은 왕에게 보유되어 왔지만 그 “정신문화는 鄭夢周를 시조로 해서 이어지는 程朱學의 문화”²³⁾였다고 하겠다. 퇴계는 우리 나라 유학의 올바른 계통을 “圃隱 寒暄 靜庵 그리고 晦齋의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다.”²⁴⁾ 사람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동질적 정치문화 위에서 출발하여 신흥왕조라는 방법론의 선택 앞에서 현직관인과 재야사림으로 양분되어 역사적 전개에 따라 이것은 훈구관인과 신진사림으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신진사림은 성리학의 연구를 주류로 하여 인간의 심성에 대해 탐구함이 깊었고 절의를 중시하였다.

퇴계는 사대사화를 겪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南倭 北朝의

19) “今南北巨患，不朝卽夕，而環顧在我無一可恃，則山林之樂亦豈必可保也耶，以是私憂竊難奈何奈何，況有民社環百里之守如何如何。”(同書, p.468)

20) “學也，祿在其中矣。”(「論語」, 衛靈公篇.)

21) “仕而優則學，學而優則仕。”(同書, 子張篇.)

22) “古之學者爲己，今之學者爲人。”(同書, 憲問篇.)

23) 姜周鎭, “李朝史에 있어서의 退溪”, 退溪先生四百周年忌紀念事業會, 「退溪學研究」, (서울大學出版部, 1972), p.228.

24) 朴鍾鴻, “退溪의 時代의 背景”, 同書, p.24.

성가심으로 시달림을 당하던 때에 생애를 보내야 했고, 벼슬을 했으며 학문을 했던 것이다. 영남학풍과 전통 속에서 성장한 그는 爲人之學이 유행하던 당시에 爲己之學에 진력한 한 주자학자였다.

Ⅲ. 정치사상

퇴계의 일생은 비록 학문과 관직생활이 병행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어디까지나 유학자였다. 그리고 정치사상가나 관료라기보다는 철학자요 주자학자인 것이다. 그런데 유학은 修己治人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하고 明明德과 新民, 修齊治平을 그 강목으로 하는 經世學이다. 뿐만 아니라 先秦 제자백가의 학설과 사상은 모두가 “歸宿於政治”²⁵⁾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政治與倫理之結合”²⁶⁾은 중국정치사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유가의 경전인 사서오경을 두고 보더라도 그 어느 하나 정치사상과 무관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先秦思想可以說都是政治思想”²⁷⁾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자학자인 퇴계는 또한 당연히 유가적 정치사상가이기도 한 것이다. 그의 저술중에는 정치사상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정치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주요한 疏筭를 중심으로하여 그것을 분석 추출해 보기로 한다.

1. 「辭職疏」를 통해 본 義理尊重的 賢能政治

퇴계는 34세에 文科 급제하여 承文院 權知副正字에 補職되면서부터 出任의 길이 시작되어 49세 되는 해 慶尙監司에게 병을 이유로 辭任狀을 세 번이나 올려도 회답이 없으므로 行裝을 꾸려 가지고 귀향해 버릴

25) 汪大華, 「中國政治思想史論叢」(台北, 帕米爾書店, 1969), p.13.

26) 梁啓超, 「先秦政治思想史」(台北, 台灣中華書局, 1962), p.36.

27) 薩孟武, 「中國政治思想史」(台北, 三民書局, 1969), p.13.

때까지의 出仕期에 근 20개 衙門에서 30여종의 벼슬을 하였다. 禮安으로 돌아가 退溪里에 은거하고서도 判中樞府事의 벼슬을 가진 채 서거한 70세까지 간헐적으로 관직생활로 留京하지 않을 수 없었다. 在鄉期間에도 자주 官爵이 除授되었고 거듭 召命이 있었으니 14개 官衙에서 本職과 겸직을 합해 30개 종류의 벼슬을 除授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은퇴기의 관직은 任命과 不就 또는 辭退의 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는 부단히 致任와 해직을 請願하여야 했다.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그의 뜻과 어디까지나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임금의 뜻이 항상 교차하여 한갓 문서상의 임명과 사퇴만이 계속된 것이 그의 노년기이다. 그리고 그의 官爵은 承文院權知副正字(從九品)로 출발하여 형식에 있어서 逝去 후의 증직인 領議政(正一品)으로까지 이어진다.

「朱子書節要序」에서 엿볼 수 있듯이 퇴계가 주자연구에 專心하게 된 것은 中宗 癸卯에 「朱子全書」가 印出頒行된 43세 이후의 일이다.²⁸⁾ 그리하여 그는 이때부터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할 뜻을 품게 된다. 그는 出仕 10년에 爲人之學을 버리고 爲己之學을 해야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南冥 曹植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의 솔직한 심증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본의 아니게 가정사정으로 宦路에 들었다가 늦게나마 그 잘못을 깨닫고 벼슬을 사양하고 책을 메고 산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²⁹⁾

퇴계는 49세때 豊基郡守辭任狀을 감사에게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28) “此書之行於東方，絕無而僅有，故士之得見者，蓋寡，嘉靖癸卯中，我中宗大王，命書館印出，臣滉，於是，始知有是書，而求得之，猶未知其爲何等書也，因病罷官，載歸溪上，得日閉門靜居而讀之，自是，漸覺其言之有味，其義之無窮。”（「退溪全書」，上，pp. 936~939.）

29) “滉資稟朴陋又無師友之導，自少徒有慕古之心，身多疾病，親舊或勸以放意適適則庶可以已疾，復緣家貧親老，強使之由科第取利祿，滉當彼時實無見識，輒爲人言所動，一向措身於誕妄之地，偶名薦書汨沒塵埃，日有不暇他向何說哉，其後病益甚，又自度無所獻爲於世，然後始乃回頭住脚，益取古聖賢書而讀之，則向也，凡吾之學問趨向處身行事，率皆大謬於古之人，於是惕然覺悟欲進而改塗易轍，以收之桑榆之景則志慮衰晚精神頹敝，疾病又從而纏繞，將無以用其力矣，而不可以遂已也則，乞身避位抱負墳典而來投於故山之中。”（同書，p282.）

70세되는 해 9월에 最後辭狀인 「乞致仕狀」을 宣祖에게 올리기까지 21년 동안에 무려 53회의 辭退願을 써 내었던 것이다. 辭狀에 담긴 사임 이유는 경우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공통점은 身病, 老衰, 才能不足, 廉恥尊重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이고, 그로서는 공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乙巳土禍이후 明宗의 母后인 文定王后의 垂簾聽政下에서 운영되는 외척정치에 대한 부만때문”이며, “둘째, 퇴계는 晩年에 이르러 주자학연구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취미가 時事에 대한 관심보다 더 컸던 때문”³⁰⁾일 것이다.

그러면 퇴계의 辭任疏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戊午辭職疏」와 「戊辰辭職疏」에 담긴 그의 정치사상을 추려보기로 한다.

첫째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賢能政治이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賢能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유가에서는 완성된 仁의 세계를 大同의 세계라고 한다. 즉 그것은 “宇宙間一大人格完全實現時之圓滿相也”³¹⁾이며, 또 그것은 孔子의 “終極的政治理想, 亦可說是人類政治理想的最高境界”³²⁾이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정치 방식은 역시 현능에 의한 정치인 것이다.³³⁾ 퇴계는 관직에는 賢愚와 능력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좋은 정치는 현능에 의해야 한다고 「戊午辭職疏」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옛 선왕들이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재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므로 재능이 큰 이에게는 큰 일을 맡기고 작은 이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며, 크고 작음에 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물리칩니다. 한 번 옷 사람이 잘못

30) 李相殷, 前揭書, pp. 54~57.

31) 梁啓超, 前揭書, p.74.

32) 林桂圃, “孔子的政治思想”, 「東方學志」, 復刊第10卷 第9期(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77), p.21.

33)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是謂大同.” (「禮記」, 禮運篇.)

알고 불행히 그릇 등용하게 되어, 선비된 자가 또한 자기 재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려 사퇴하기를 청하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大臣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小臣은 일도 않고 공연히 녹만 먹는 허물이 없게 되어, 현명한 이가 그 자리에 앉고 능력있는 이가 그 직책을 맡아, 충성심을 떨쳐 능력을 다하지 않는 이가 없어 조정에서 정치를 이루게 되고, 그 재능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野에 물러가 있도록 허락하여 자기 분수에 편안히 하며 재노력으로 먹고 또한 그 예의와 엄치를 지키니, 이것이 옛적에 賢과 愚가 각기 제자리를 얻고 禮讓이 행해져 정치가 이루어지는 소치입니다.”³⁴⁾

그리고 또 그는 인재등용은 밝게 살펴서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고 사람을 쓰는데 능하면 가히 나라의 태평을 이룰 수 있다고 「戊辰辭職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의 賢哲한 왕이 능히 一世의 인재를 얻어 잘 썼던 바는 다름이 아니오라, 그 선택을 밝게 살펴서 하고 처우를 알맞게 한 까닭입니다. 대저 천하의 인재의 품격에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서, 큰 것은 작게 할 수 없고 작은 것은 크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옛날의 현철한 왕은 그러함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 밝게 살펴서 선택하고 어렵게 신중히 처우하여, 爵名을 줄 때에는 각각 그 才品에 따르고, ……이리하여 옛날의 현철한 왕은 사람을 쓰는데 능하여 태평을 이룩한 것입니다.”³⁵⁾

34) “昔先王之用人也，量才而授任，大以任大，小以任小，大小俱不合者則退之，一有不幸，上之人不知而誤用之，爲士者又必自量其才之不堪，辭而乞退則聽之，夫朝廷之不枉才如此，士得行其志又如此故，大臣無覆餗之譏，小臣無尸祿之愆，賢者在位，能者在職，莫不奮忠效力，以濟治於上，其不才者許其屏處於野，得以安其分食其力，亦守其禮義廉恥，以象治於下，此隆古之時，所以賢愚得所，禮讓興行而治道成也。”（「退溪全書」，上，p.170.）

35) “古先哲王，所以能得一世之人才，而善用之者無他，以其澤之審而處之當故也，蓋天下人才之品，有大有小，大者不可以爲小，小者不可以爲大也，先王知其然故，必謹審而擇之，難慎而處之，爵命之加各隨其才，……此先王之所以能用人而致太平也。”（同書，pp. 177~178.）

다음에 공직자는 의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高麗末의 治隱 吉再 이래의 학풍과 전통을 계승한 영남지방의 사림은 하나의 학파 즉 영남 학파를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절의를 매우 존중하였으므로 불의를 철저히 배격하였다. 퇴계는 「戊午辭職疏」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不義를 열거 매도하였다.

“무엇을 義라 하는가 하면 일의 宜當함을 義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고도 어리석지 않은 채하고 벼슬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히 의당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으로 폐인이 된 처지에 헛되게 祿만 받는 것이 가히 의당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이 가히 의당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른 것을 알면서 덮어 놓고 나아가는 것이 가히 의당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직무를 다 하지도 못하면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가히 의당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다섯 가지의 宜當하지 못함을 가지고 조정에 선다면 신하된 의리에 어떨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나가지 못하는 것은 다만 義라는 한 글자를 성취하고자 할 뿐인 까닭입니다.”³⁶⁾

明宗은 이 疏文을 보고 批答하기를,

“이제 올린 疏의 말을 보니 전후의 물러나려던 일을 갖추어 기록하고, 다섯 가지 마땅하지 못한 점을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굳게 고집하니, 비록 사람을 얻어서 정치답게 하여 보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 능히 그 뜻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내가 실로 덕이 없고 사리에 어두우며, 죽히 하잘 것 없기 때문에 그대는 道를 지키고 義를 지키면서 도와 줄 뜻이 없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노라. 마땅히 내 뜻을 알라.”³⁷⁾

36) “何謂義, 事之宜也, 然則諱愚竊位可謂宜乎, 病廢尸祿, 可謂宜乎, 虛名欺世可謂宜乎, 知非冒進可謂宜乎, 不職不退可謂宜乎, 持此五不宜以立 本朝, 其於爲臣之義可如也, 故, 臣之不敢進, 祇欲成就一義字而已。”(同書, p.172.)

37) “今見疏辭, 備錄前後求土之事, 至陳五不宜, 牢執不來, 雖欲得人致治, 何能奪其志乎, 予實寡昧, 不足與有爲, 守道守義, 斷無來輔之意, 予甚赧然, 宜知予意。”(「退溪全書」, 下, p.583.)

라고 하였다.

2. 「戊辰六條疏」가 提示하는 修己治人の 道德政治

宣祖는 즉위 후에 퇴계에게 누차 召命을 내려 出任을 敦促하였으나 그는 시종 사양하다가 68세의 老臣으로서 國恩에 보답할 겸 아직도 나이 어린 임금의 장래를 근심하는 일념에서 바친 것이 「戊辰六條疏」이다. 이 疏文은 퇴계의 文蹟 중 정치적 견해가 가장 강하게 표현돼 있는 것으로서 그의 정치사상을 논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면 이 疏文에 제시된 그의 정치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퇴계는 宣祖 당시의 정국에 대하여 군왕으로서 마땅히 유의해서 실천해야 할 治道를 말하였는데 그 6가지 조목은 다음과 같다.³⁸⁾

- 제1조, 계통을 중히 하여 仁孝를 온전히 할 것.
- 제2조, 참소하는 말을 막아서 兩宮을 친근하게 할 것.
- 제3조, 聖學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이룩할 것.
- 제4조, 道術을 밝힘으로써 인심을 바로 잡을 것
- 제5조, 腹心에게 말기고 耳目을 통할 것.
- 제6조, 수양과 반성을 성실히 함으로써 하늘의 眷愛를 받을 것.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조목에 대해 하나하나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重繼統以全仁孝”이다. 계통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통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統治體에 있어서 권력의 정통성의 획득이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法統에 따라 왕위에 올랐으면 私를 떠나 공적 존재로서 孝道와 仁德을 상아 왕통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에 있어서는 仁을 최고의

38) “其一曰重繼統以全仁孝”，“其二曰杜讒間以親兩宮”，“其三曰敦聖學以立治本”，“其四曰明道術以正人心”，“其五曰推腹心以通耳目”，“其六曰誠修省以承天愛”，(同書，上，pp.181~193.)

정치이상으로 하고 孝弟는 行仁의 本으로 삼는다. 仁治와 孝治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³⁹⁾ 퇴계는 강조하기를,

“천하의 일이 君位の 一統보다 더 큰 일은 없는데, 대개 막중한 계통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은 아버지께 이어받는 것이니, 그 일의 지극히 중대함이 어떻다 하겠사옵니까. 자고로 임금으로서 지극히 크고 막중한 계통을 계승하지 않는 이가 없지마는 능히 그 지극히 크고 막중한 뜻을 아는 이가 적어서 孝에 부끄러움이 있고, 仁에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⁴⁰⁾

라고 하였다.

둘째, “杜讒間以親兩宮”이다. 유가에 있어서는 修齊治平을 정치이상으로 하는데, 平天下하고자 하는 이는 먼저 治國을 하고, 治國코자 하는 이는 먼저 齊家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순서이다. 그러므로 참언으로써 사람들을 이간시킴을 막고 兩宮을 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군왕은 治國, 平天下에 앞서 齊家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대저 집안의 범도가 엄정하고 兩宮이 和樂하면, 이 무리들은 그 간사한 것이 용납될 바가 없어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⁴¹⁾

라고 하여 齊家の 중요성을 말하고, 또 그는 당시의 궁궐내의 사장을 걱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물며 오늘날 대궐 안에는 묵은 凶姦들과 늙은 妖惑이 있어 항상 조정에 깊이 근심하는 바와 같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

39) 李元述, “儒家政治思想에 있어서의 孝의 意味”, 「社會科學研究所」, 第5輯, 第2卷(嶺南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5), pp. 83~97, 參照.

40) “天下之事, 莫大於君位之一統, 夫以莫大之統, 父傳於子而子承乎父, 其事之至重爲如何哉, 自古人君莫不承至大至重之統, 而鮮能知至大至重之義, 孝有慙德而仁未盡道者多矣……” (「退溪全書」, 上, p.182.)

41) “蓋家法嚴正兩宮交驩則, 此輩無所容其奸而不獲利.” (同書, p.183)

은 다만 암돼지가 날뛰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전하께옵서는 大易에 있는 家人卦의 뜻을 살펴 거울로 삼으시고, 小學 明倫의 교훈을 본받으시어, 스스로 다스림을 엄하게 하시와, 집을 바로잡기를 삼가 행하시고…….”⁴²⁾

셋째, “敦聖學以立治本”이다. 聖學을 돈독히하여 정치의 근본으로 삼으라고 함은 정치의 근본이 聖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聖學의 요체는 精一執中이요,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大學」의 格物 致知와 誠意 正心, 그리고 「中庸」의 明善과 誠信을 들고 있다. 精一執中은 堯舜禹가 相授한 心法이며,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라고 하는 16字訣은 舜이 禹에게 선양하면서 諭示한 말이다. 유가정치 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원리도 궁극적으로는 精一執中하고 建中建極하는 중의 원리가 바로 그 大經大法인 것이다.⁴³⁾ 퇴계는 聖學이 至治의 근본이요, 聖學의 요체가 精一執中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왕의 학문에서 心法의 요점은 大舜이 禹에게 명함에 그 연원이 있는 것이니 그 말에 이르기를 ‘人心은 위태하고 道心은 오직 미묘하니 오직 精하게 하고 오직 專一하게하여 그 中을 잡으라’ 하였어오니…… 精하고 專一하게하여 그 中을 잡는 것은 학문을 하는 큰 법이 오니, 큰 法으로써 큰 근본을 세우면 천하의 정치가 모두 여기에서부터 나올 것이 옵니다.”⁴⁴⁾

넷째, “明道術以正人心”이다. 퇴계는 여기에서,

42) “況今宮闈之間宿姦老蠱，如前後朝論所深憂者，猶未盡去，此恐不但如嬴豕之躑躅而已，伏願 殿下監大易家人之義，法小學明倫之訓，嚴於自治而謹於正家……” (同書, p.184.)

43) 李元述, “先秦政治思想에 있어서의 中의 意味”, 「社會科學研究」, 第2輯 第1卷(嶺南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2), pp. 155~170, 參照

44) “帝王之學心法之要，淵源於大舜之命禹，其言曰，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精一執中爲學之大法也，以大法而立大本則，天下之政治皆自此而出乎。” (「退溪全書」, 上, p.184.)

“唐虞三代之 盛時에는 道術이 매우 밝아 다른 의혹이 없었다 하옵니다. 고로 人心도 올바름을 얻어 治化가 흡족하게 행해졌습니다…… 도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천명에서 나와서 떳떳한 윤리를 행함이니 고금 천하에 다같이 공통된 올바른 길이옵니다. 堯舜이나 三王은 이에 밝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지위를 얻은 까닭으로 혜택이 온 천하에 미쳤사옵니다.”⁴⁵⁾

라고 하였는데, 道術은 천도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군왕은 천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천명에 순응하는 길을 밝히고 그 길에 맞도록 정치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邪術에 현혹됨이 없이 인심도 스스로 바로 잡혀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推腹心以通耳目”이다. 퇴계는 국가를 인체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나라의 國體는 한 사람의 몸과 같사오니, 사람의 한 몸에 머리는 위에 있어서 통솔하여 君臨하고, 배와 가슴은 가운데서 머리의 지령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귀와 눈은 두루 통달하여 호위하고 깨우쳐 주나니, 그런 뒤에라야 一身이 편안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의 한 나라의 元首요, 大臣은 그 心腹이며, 臺諫은 그 耳目이다, 三者가 서로 합하여 이루는 것은 실로 나라의 바꿀 수 없는 불변의 事勢요 천하와 고금에 한결같이 공통됩니다…… 임금이 大臣, 臺諫의 세 세력이 일치하여 精을 모으고 神을 모아 통하여 한 몸이 되나니, 이와 같이 하고서도 조정에 善政이 없고, 나라에 善治가 없고, 세상이 태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臣은 일찌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⁴⁶⁾

45) “唐虞三代之盛，道術大明而無他歧之惑，故人心得正而致化易治也，…… 何謂道術，出於天命而行於彝倫，天下古今所共由之路也，堯舜三王明乎此而得其位故，澤及於天下。”(同書, p.186.)

46) “一國之體，猶一人之身也，人之一身元首居上而統臨，腹心承中而幹任，耳目旁達而衛喻，然後身得安焉，人主者一國之元首也，而大臣其腹心也，臺諫其耳目也，三者相待而相成，實有國不易之常勢，而天下古今之所共知也，…… 三勢洞然聚精會神通爲一體，若是而朝無善政，國無善治，世不致隆平者，臣未之聞也。”(同書, pp. 188~189.)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머리를 왕에, 배를 大臣에, 그리고 귀와 눈을 臺諫에 비유했는데, 元首는 천명에 따를 줄 알아야 하고, 大臣은 잘 輔弼해야 하며, 臺諫은 직언을 잘해야 국가가 잘 다스려진다고 했다. 그리고 元首는 大臣과 臺諫을 잘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자는 私心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견해를, “元首의 國家機關說과 같은 것으로서, 元首의 萬能과 專制君主制를 배격하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⁴⁷⁾고 이해하려는 이도 있다.

여섯째, “誠修省以承天愛”이다. 군주는 수양과 반성을 성실히 하여 하늘의 眷愛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군왕이 천명을 잘 받아들일 자세 즉 修己 修德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퇴계는 말하기를,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고 하는 것이니, 무릇 천지에는 生物이 總總하고 林林히 많이 모여 있어, 동물이니 식물이니 하고 혹은 크고 혹은 작은 것이 다 하늘이 불쌍히 여겨 덮어 주고 仁愛하는 바이온데, 하물며 만물에 뛰어나고 가장 神靈한 우리 인간, 즉 천지의 본심이 되는 자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사옵니까. 그러나 하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능히 스스로 베풀지는 못하고, 반드시 가장 신령하고 성스럽고 밝고 으뜸으로 어질고 신과 인간에 조화될 사람을 더욱 眷愛하여 임금으로 삼고 백성들을 맡아 가를 것을 부탁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그 仁愛의 정치를 행하게 하고, 이미 이를 명하고 이를 도와서 사방 백성들을 총애하고 편안하게 한 것이옵니다.”⁴⁸⁾

라고 하였으니, 大學에서도 “康誥, 曰, 惟命, 不于常,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⁴⁹⁾라하여 천명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이

47) 姜周鎭, “退溪의 政治思想”, 「韓國의 哲學」, 第14號(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76), p.87.

48) “天地之大德曰生, 凡天地之間含生之類, 總總林林若動若植若洪若纖, 皆天所閱覆而仁愛, 而況於吾民之肖象而最靈, 爲天地之心者乎, 然天有是心而不能以自施, 必就夫最靈之中, 而尤眷其聖哲元良, 德協于神人者爲之君, 付之司牧以行其仁愛之政, 既命之佑之而寵綏四方矣.” (同書, p.190.)

49) 「大學」, 傳之十章

를 얻을 수 있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하면 천명을 잃게 된다고 했다. 퇴계는 이 條에서 군주는 언제나 천명에 거역함이 없이 善政을 해야 하고 폭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계는 이상의 여섯 조목은 驚天動地한다거나 사람의 이목을 震輝시키는 것이 아니라, 彝教에 근면하면 性道에 근본하고, 聖賢을 중주하여 「中庸」과 「大學」에 바탕하며, 역사기록에 상고하고 時事에 징험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宣祖는 이 疏를 읽고, 이것은 千古의 격언이요 當今の 急務라고 다음과 같이 批答하였다.

“내가 疏의 글을 보니 卿의 도덕은 옛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역시 그 짝이 될 만한 이가 적을 것이다. 대개 이 여섯 가지 조목은 참으로 千古의 격언이요. 지금에 당한 급한 일이라. 내가 비록 적고 못생겼지만 어찌 감히 간직하고 지키지 아니하겠는가.”⁵⁰⁾

여기서 퇴계와 쌍벽을 이룬 당대의 학자 율곡이 임종을 앞두고 필력을 다하여 부국강병책을 아뢰 「六條啓」(癸未)에 담긴 여섯 가지 조목⁵¹⁾과 朱子가 60세 때, 즉 孝宗의 淳熙 16년(1189)에 진술한 「己酉擬上封事」의 十個 항목⁵²⁾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고 시사적인 것이라 하겠다.

3. 「戊辰慶筵啓劄」에 말한 保民安邦의 中道政治

經筵官은 국왕에게 유학경전과 史書등을 進講하고 고금의 인물과 時

50) “予觀疏章，卿之道德，質地古人，亦鮮其倫，凡此六條，眞千古之格言，乃當今之急務，予雖眇末，敢不服膺。”（「退溪全書」，下，p.590.）

51) “其目則一曰任賢能，二曰養軍民，三曰足財用，四曰固藩屏，五曰備戰馬，六曰明教化。”（「栗谷全書」，卷之八）

52) “一，講學以正心。二，修身以齊家。三，遠便嬖以近忠直。四，抑私恩以抗公道。五，明義理以絕神姦。六，擇師傅以輔皇儲。七，精選任以明體統。八，振綱紀以厲風俗。九，節財用以固邦本。十，修政事以攘夷狄。”（「朱子大全」，卷六十二。）

政에 대한 논평을 가하는 관직으로서 국왕의 학식과 건문을 넓히고 德性を 함양하여 국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국왕과 面待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국왕을 통하여 자기의 정치적 論論을 실현해 보려는 이도 있다.

퇴계는 出仕期에 經筵의 檢討官, 侍讀官, 侍講官 등을 맡은 적이 있었으나 이 때는 다만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이요,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직접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해서 그가 단순히 謹慎 保命에만 급급하는 하나의 관료로만 처신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국가장래를 위하여 원대한 식견과 至治 善政을 위한 일관된 政治經綸을 표명한 바도 없지 않다. 특히 그는 戊辰年인 宣祖元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여러 차례 經筵에서 進講하였는데, 이때 왕의 예우 또한 지극하여 매양 經筵에 임하여 그의 강의를 경청하였으며, 勸講의 여가에 君德을 기르고 時政의 得失을 논하여 비록 宮禁과 戚屬에 관계되는 일이라도 숨김없이 進言하면 왕은 허심탄회하여 이를 採納하였다.

「戊辰經筵啓筭」은 퇴계가 새로 즉위한 宣祖께 올린 經筵啓筭로서 여기에는 그의 정치적 견해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 거기에는 民爲邦本임을 역설하고 保民安邦할 것과 至公無私한 中道政治를 강조하고 있다.

“옛날에 이르기를 오곡 중에 단 한 가지 곡식이라도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다 하였는데, 이제 모든 곡식이 다 흉년이 들었으니, 백성들이 어찌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화 역시 하나도 없으니 백성들이 어찌 몸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飢寒이 몸에 절박하면 백성들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 아아 나라의 근본이 어찌 동요하지 않겠습니까.”⁵³⁾

라고 하여 당시 백성들의 참상을 아뢰고, 民이 邦本이므로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구제할 대책의 강구를 촉구했으며,

53) “古語云一穀不登民受其飢，今則百穀不登民何以充腹，木花掃無民何以蔽體，飢寒切身民無所顧藉 …… 哀我邦本寧不動搖。”(「退溪全書」, 上, p.194.)

“옛날의 어진 임금은 백성들 보기를 상치난 것을 보듯 하며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하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한이 없습니다. 만일 疾病과 飢寒을 당하면 슬퍼하고 가엾게 여김을, 직접 제몸에 당한 것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안아 주고 만져 주어서 정성껏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 방법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⁵⁴⁾

라고 하여, 백성을 자식 사랑하듯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어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왕의 임무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大學」의 “康誥曰，如保赤子，心誠求之，雖不中不遠矣。”⁵⁵⁾라는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고, 民爲邦本이니 保民安邦에 힘쓸 것을 역설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 퇴계는 私心이 악의 근원이라 하고 至公 無私할 것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마음의 좁이요 모든 惡의 근본입니다. 옛날부터 나라가 잘 다스려진 날은 언제나 적고, 어지러운 날이 항상 많았습니다. 몸을 滅하고 나라를 망치는데 이르는 것은 다 임금이 私라는 한 글자를 능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⁵⁶⁾

그리고 퇴계는 私를 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 하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の 공부에 있어서 私를 버리고, 修身齊家에 있어 편벽됨을 없게 하고, 治國 平天下에서도 또한 군주가 욕심을 부려서 私益을 삼을까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書經」 洪範九疇 중의 중심에 위치한 다섯째의 “皇極”에 있는 글을 인용하여,⁵⁷⁾ 至公無私한 大中之道를 찬양하고 中道政治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54) “古之人君視民如傷若保赤子，父母愛子之心無所不至，如遇其疾病飢寒則哀傷惻怛，不啻在己，提抱撫摩誠求不遠。”(同上)

55) 「大學」，傳之九章。

56) “私者一心之蠹賊而萬惡之根本也，自古國家治日常少亂日常多，馴致於滅身亡國者，盡是人君不能去一私字故也。”(「退溪全書」)，上，p.195.)

57) “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無反無側，王道正直，會其有極，歸其有極。”(「書經」，周書 洪範.)

“대저 편벽되고 기울어지며 좋아하고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만 왕도에 따를 수 있을 것이요, 한편에 치우치고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만 왕도에 따를 수 있을 것이요, 한 편에 치우치고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만 왕도를 蕩平하여져서 극에 모이고 極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관찰해 볼 때, 비록 聖人の 지위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혹시나 편벽된 자가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며 항상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하였는데, 하물며 성인에 이르지 못한데 있어서야 마땅히 더 경계해야 합니다.”⁵⁸⁾

洪範에 있어서는 第五의 皇極이 九疇의 중앙 위치에 자리잡고 九疇中에서 가장 존중된다. 皇極이란 大中, 大中至正의 道를 뜻하는 것이다. 유가정치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원리도 궁극적으로는 精一執中하고 建中建極하는 中의 원리가 바로 그 大經大法인 것이다. 中하면 公·正·平·常하게 되고, 中이면 仁하고, 誠하며, 그리고 禮가 되는 것이다. 中은 천하의 대본이요 正道이며, 中은 天道요 人道인 것이다.⁵⁹⁾ 퇴계는 이 중 道政治를 역설한 것이다.

4. 「聖學十圖」에 담긴 內聖外王之 王道政治

「聖學十圖」는 유학사상을 체계화하여 이것을 政治實用에 所用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聖學이라 함은 곧 유교를 말한 것인데, 知德을 兼全한 聖賢의 교훈을 學行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聖學이란 바로 성인을 배우는 학문이기도 하고, 또 聖王을 배우는 학문이기도 하다. 성인을 배우는 의미의 성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聖王을 배우는 의미로서의 성학은 제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58) “蓋必其無偏陂好惡之私然後王道可遵，無偏黨反側之事然後王道蕩平，而會極歸極可得而言，以此觀之雖至聖人地位，猶恐或有偏僻之私，常懷懼爲戒，況未至於聖人宜如何哉。”（「退溪全書」，上，p.195.）

59) 李元述, “儒家에 있어서의 仁의 政治思想.”, 「社會科學研究」, 第8輯 第1·2卷(嶺南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8), pp. 105~106.

다. 「聖學十圖」는 퇴계가 68세의 老臣으로서 그의 일생일대 필생의 蘊蓄을 기울이고 最終奉公의 정성을 다하여 새로 登極한 幼少한 宣祖에게 올린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의 가장 원숙한 晩年の 사상의 전모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지극히 簡明하게 압축 요약되어 있다.

퇴계가 「聖學十圖」를 꾸민 것은 오로지 군주로 하여금 爲治의 大本인 德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 德은 곧 太極圖說의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이라고 한 人極으로서의 德이며, 西銘에 말한 “聖其合德”의 德이며, 大學의 “明明德”의 德이며, 心統性情圖에서 말한 本然之性의 發인 “四端”의 德이며, 仁說圖의 “天地生物之心”으로서의 仁의 德이며, 心學圖의 “良心”, “赤子心”, “大人心”, “道心”을 뜻하는 德이다. 이와 같은 德을 어떻게하여 올바로 인식하고, 어떻게 人倫日用에 있어서 체득 실천하며, 나아가 제왕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정치에 구현시키는가 하는 구체적 방법 절차를 말한 것이 小學圖, 白鹿洞規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이다.

퇴계는 「聖學十圖」의 序文格인 「進聖學十圖劄」에서,

“이에 聖學을 勸導하고 君德을 輔養하여 堯舜처럼 융성한 데 이르도록 할 직책을 비록 감당할수 없다고 사양한들 되겠습니까.”⁶⁰⁾

“다만 옛 성인과 군자들이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圖를 만들고 說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道에 들어가는 門과 德을 쌓는 기초를 가르친 것이, 오늘날 해와 별같이 밝아 있습니다. 이에 감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에게 진술하여, 옛 제왕들의 工誦과 器銘의 끼친 뜻을 대신하고자 하옵니다.”⁶¹⁾

“만일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익혀서 平素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를 하신다면, 여기에 道가 영기고 聖인이 되는 요령이 있으며, 근본을 바르게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⁶²⁾

60) “是勸導聖學，輔養宸德，以期致於堯舜之隆 雖欲辭之以不敢，何可得也。”(「退溪全書」，上，P.196.)

61) “惟有昔之賢人君子，明聖學而得心法有圖有說，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者，見行於世昭如日星，茲敢欲乞以是進陳於左右，以代古昔帝王工誦器銘之遺意。”(同上)

라고 하여, 이 「聖學十圖」를 시종일관해서 반복 학습하여 이를 하찮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싫증나고 번거롭다고 그만두는 일이 없다면 內聖外王의 德治가 이룩되어 국가와 백성들에게 지극한 다행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聖學十圖」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극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第一太極圖>는 周濂溪의 圖 및 圖說, 朱子의 해설과 퇴계의 補說로 되어 있다. 여기서 세계존재의 理法과 인간존재의 理法이 相卽的으로 類比되어 제시되고 無極, 太極에 해당하는 人極이 세워졌으며 中正仁義의 길도 정해졌다. 세계와 인간이 결합 연결되고, 세계의 생성내지 존재의 理法은 곧 인간의 생성 내지 존재의 理法이라고 보았다. 퇴계는 筌子의 冒頭에서 聖學에 大端이 있다고 했는데 그는,

“聖人을 배우는 자가 端緒를 이로부터 구하여 「小學」, 「大學」같은 것에 힘쓰면 그 功을 거두는 날에 이르러 하나의 근원으로 끝까지 소급해 올라가면 이른바 理를 窮하고 性을 다하며 命에 이른다는 것이 이것이며, 이른바 神妙를 다하고 造化를 알아 德의 聖者が 된다는 것도 이것입니다.”⁶³⁾

라고 하였다.

<第二西銘圖>는 張橫渠의 西銘, 程林隱의 圖, 朱子와 楊龜山의 해설, 그리고 퇴계의 補說로 구성되어 있다. 천지 자연은 陰陽二氣의 상징적 작용으로서의 乾坤에 의해 생성 변화되고, 생성 변화는 그 원리 근원을 하나로 하면서 乾坤을 그 상징적 작용으로하여 萬事 萬化한다. 인간도 생성의 근원을 하나로 하면서 多種多樣하다. 여기에 理一分殊의 사상이 인간세계에 적용되고, 仁이 구체적인 인간 상호관계를 잇는 실천적 이

62) “思之習之只做工程於平日燕處, 而凝道, 作聖之要, 端本出治之源悉具於是。”(同書, p.198.)

63) “蓋學聖人者求端自此而用力於小大學之類, 及其收功之日而適極一源, 則所謂窮理盡性而至於命, 所謂窮神知化德之盛者也。”(同書, p.199.)

념으로 등장한다. 퇴계는,

“聖學은 仁을 구하는데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됨이 진실로 이렇다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므로 程子是 이르기를 西銘의 뜻은 극히 완비하니 이것은 仁의 體이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다 채워 확충한 때는 聖人이 된다고 하였습니다.”⁶⁴⁾

라고 하였다. 太極圖와 西銘은 聖學의 端으로서 세계존재와 인간존재의 전체를 논한 것이다.

<第三小學圖>는 小學題辭, 퇴계의 圖와 補說, 그리고 朱子の 「大學或問」의 일부로 구성되었다. 「小學」은 大人이 되기 이전의 小人의 學으로서 灑掃應對進退의 절차와 六藝의 敎를 체득하는 구체적인 細目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퇴계는,

“「小學」과 「大學」은 서로 待對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런 까닭에 하나 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⁶⁵⁾

라고 하여, 이 양자를 兼收함으로써 서로 돕는다고 하였다. 「小學」은 오직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행동양식의 訓練, 技藝의 修熟을 통하여 幼少年의 心身을 육성하는 것이다.

<第四大學圖>는 「大學」의 經文首章, 朱子の 敬에 관한 說, 그리고 퇴계의 補說로 구성된다. 「大學」의 내용은 三綱領 八條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반드시 먼저 自己 一身의 德을 닦고, 德을 닦은 自己으로써 齊家, 治國, 平天下를 할려고 하는 修己治人の 大綱을 포괄하고 있다. 물론 그 근본은 修己이다. 「大學」의 經文 다음에는 朱子の 敬에 대한 所說을 덧붙였는데, 敬은 一心의 主宰요 만사의 근본이므로, 모든 수양

64) “蓋聖學在於求仁，須深體此意，方見得與天地萬物一體，…… 故程子曰西銘，意極完備，乃仁之體也，又曰充得盡時聖人也。” (同書, p.201.)

65) “蓋小學大學相待而成，所以一而二二而一者也。” (同書, p.202.)

의 중심은 持敬이라 하고, 「小學」은 持敬을 위한 시작이며, 「大學」은 持敬의 끝이자 완성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敬은 위에서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하니, 공부를 하여 마땅히 효과를 거두는데 종사하고 잃지 말 것입니다. 朱子의 말이 그와 같으니, 지금 이 十圖에도 모두 敬으로써 주로 삼는 것입니다.”⁶⁶⁾

라고하여 敬이라는 한 字가 聖學의 시종의 요령이라고 하여 매우 중시하고 있다.

<第五白鹿洞規圖>는 朱子의 後敍, 퇴계의 圖(文辭는 朱子의 것) 및 補說로 되어 있다. 白鹿洞規는 朱子가 白鹿洞書院의 학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서, 聖學은 본시 五倫 五常을 명확히 깨달아 알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퇴계는 帝王之學의 기본이 彝倫에 있음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唐虞 시대의 교육은 五品에 있고, 三代之 學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洞規의 窮理와 力行이 모두 五倫에 기본을 둔 것입니다. 또 帝王之學이 그 준칙과 금지의 조목은 비록 보통 學者들과 똑 같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人倫에 기본을 두고 이치를 구명하며 행함에 힘써서 心法の 절실하고 요긴한 것을 구하는 데에는 일찌기 같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⁶⁷⁾

<第六心統性情圖>는 程林隱의 上圖와 說, 퇴계의 中·下圖와 補說로 구성되어 있다. 退溪는 긴 補說의 結尾에서 인간주체의 내부적 존재양식에 있어서의 心의 위치를 설명하여,

66) “敬者又徹上徹下著工收效，皆當從事而勿失者也，故朱子之說如彼，而今茲十圖皆以敬爲主焉。”(同書, p.203.)

67) “蓋唐虞之教在五品，三代之學皆所以明人倫，故規之窮理力行，皆本於五倫，且帝王之學其規矩禁防之具，雖與凡學者有不能盡同者，然本之彝倫而窮理力行，以求得夫心法切要處未嘗不同也。”(同書, p.204.)

“요컨대 理氣를 겸하고 性情을 統攝하는 것은 心이요, 性이 발하여 情이 될 그 즘음은 바로 一心의 幾微요 萬化의 樞要로서 선악이 여기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학자는 진실로 능히 持敬에 專一하여 理와 欲에 어둡지 않고, 더욱이 이에 삼가하여 未發인 때 存養의 功이 깊고, 已發인 때 성찰의 翫이 익숙해져서 참되게 쌓고 오래 힘써 마지 않으면 이른바 精一執中之 聖學과 存體應用的 心法이 다 밖에서 구할 필요없이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⁶⁸⁾

라고 하였다.

<第七仁說圖>는 朱子の 仁說, 퇴계의 圖(文辭는 朱子の 것) 및 補說로 되어 있다. 仁이란 天地生物之心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여, “세계 내지 자연의 理法과 仁의 理法과는 相卽의으로 비유되어 여기에서도 天人合一의 이상을 나타나는 것”⁶⁹⁾이다. 퇴계는 이 仁說은 仁道를 밝혀 남김이 없다고 하고,

“지금 예 제왕들의 傳心 體仁의 妙法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찌 이에 뜻을 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⁷⁰⁾

라고 하였다. 실로 “유가의 정치사상은 仁을 중심으로 하고 仁이 그 본체가 된다. 그것은 仁을 최고의 이상으로 한다. 유학은 곧 仁學이요, 유학의 정치사상인 王道는 바로 仁道인 것”⁷¹⁾이라 하겠다.

<第八心學圖>는 程林隱의 圖說 및 圖, 그리고 퇴계의 補說로 구성된다.

68) “要之兼理氣統性情者也心，而性發爲情之際，乃一心之幾微萬化之樞要，善惡之所由分也，學者誠能一於持敬，不昧理欲而尤致謹於此，未發而存養之功深，已發而省察之習熟，眞積力久而不已焉，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存體應用之心法，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同書, pp. 205~206.)

69) 高橋 進著, 安炳周譯, 「李退溪와 敬의 哲學」(서울, 新丘文化社 1986), p.237.

70) “今欲求古昔帝王傳心體仁之妙，盡於此盡意焉。”(「退溪全書」, 上, p.207.)

71) 李元述, “儒家에 있어서의 仁의 政治思想”, 前掲書, p.110.

“心이란 一身의 主宰요, 敬은 또 一心의 主宰이다.”⁷²⁾

라고 한 大命題를 근거로 하여 一身의 主宰인 心圈과 一心의 主宰인 敬圈을 중심으로 心의 여러 별칭과 敬의 여러 가지 방법적 차별을 일목료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본성에 따라 작용할 때는 道心이 되지만, 人欲에 움직여지기 쉬운 구체적인 人心과 따로 道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人心을 道心으로 하기 위한 功夫 수양은 敬을 떠나서는 있을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第九敬齋箴圖>는 朱子の 敬齋箴 및 해설, 그리고 퇴계의 補說로 되어 있다. 敬齋箴은 朱子가 그의 서재 壁上에 써붙여 스스로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敬을 실천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細目을 제시한 것이데, 퇴계는,

“恒常 日常의 생활과 보고 생각하는 사이에 몸소 음미하고 깨닫고 살피서 연음이 있으면, 敬이 聖學의 始終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믿음직하지 않겠습니까.”⁷³⁾

라고 하고 있다.

<第十夙興夜寐箴圖>는 陳南塘이 지어 스스로 경계한 「夙興夜寐箴」과 퇴계가 이것을 圖로 만들고 또 補說을 붙인 것이다. 이 圖는 중앙에 敬圈을 그려 놓고 箴文 52句節을 上·中·下 三段과 右·中·左 三部로 갈라서 서로 연결을 짓도록 배치해 놓은 것으로서,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일에 敬으로써 일관하도록 한 것이다. 퇴계는,

“이것은 一動一靜 어느 것이나 곳에 따라 때에 따라 存養하고 성찰하여 그 功夫를 힘쓰게 하는 法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느 地頭에서나 호리의 差失도 없을 것이요, 어느 시점에서나 一瞬의 중단도

72) “心者一身之主宰,而敬又一心之主宰也.” (「退溪全書」, 上, p.208.)

73) “常宜體玩警省於日用之際心日之間而有得焉, 則敬爲聖學之始終豈不信哉.” (同書, p.210.)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써 進하면 聖人되는 요령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⁷⁴⁾

라고 하였다.

퇴계는 위의 열 가지의 圖에 있어서 처음부터 다섯째까지의 다섯 개 圖는 “天道에 근원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노력 공부에 의한 효과는 인륜을 밝히고 德行에 힘쓰는데 있다”⁷⁵⁾고 하고, 여섯째부터 끝까지의 다섯 개 圖는 “마음의 본성에 근원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요건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 聖學의 실천에 노력하고 敬畏心を 높이는데 있다”⁷⁶⁾라고 하였다. 「聖學十圖」는 불과 10쪽밖에 안되는 간단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聖學, 즉. 유학의 근본원리와 수행방법이 남김없이 총망라되어 있어 그 진수가 압축된 하나의 결정체인 것이다. 內聖外王의 德이 여기에 있고, 왕도정치의 道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聖學十圖」는 國內에서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게도 일찌기 출판 보급된 바 있다. 清末 變法自強派의 대표적 사상가인 梁啓超의 「退溪先生聖學十圖贊詩」⁷⁷⁾에서 退溪 尊崇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 「鄉立約條」에서 보는 鄉黨合意的 自治相規

퇴계의 「鄉立約條」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먼저 향약과의 관련을 봐야 할 것인데, 이 향약의 源流는 中國 北宋末에 藍田의 呂氏兄弟가 鄉里의 교화를 위해 사사로이 마련한 「呂氏鄉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의 주된 골자는 「凡同約者,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

74) “此一靜一動隨處隨時, 存養省察交致其功之法也, 果能如是則不遺地頭而無毫釐之差, 不失時分而無須臾之間, 二者並進作聖之要其在斯乎.” (同書, p.211.)

75) “本於天道, 而功在明人倫懋德業.” (同書, p.204.)

76) “原於心性, 而要在勉日用崇敬畏.” (同書, p.211.)

77) “巍巍李夫子, 繼開一古今, 十圖傳理訣, 百世詔人心, 雲谷琴書潤, 濂溪風月尋, 聲教三百載, 萬國乃同欽.”

恤, 有善則書于籍, 有過若違約者亦書之, 三犯而行罰, 不悛者絕之“인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에는 四大綱目이 제시 되고 善籍과 惡籍을 두어 해당자를 기록하였다가 約中會合時에 상벌을 행하되 끝내 改過치 않는 者는 공동체로서의 동리생활에서 소외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呂氏鄉約」은 朱子에 의하여 加減增補되어 더욱 완비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朱子增損呂氏鄉約」이다. 물론 이것은 「呂氏鄉約」의 기본강목을 主幹으로하여 이를 한층더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⁷⁸⁾ 그리고 이것은 朱子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것이다.

朱子學徒의 등용에 따라, 中宗代에 있어서, 朱子學的 禮俗을 정착시키려는 방도의 하나로서 향약의 실시는 그들의 관심거리였다. 慶尙監司 金安國은 中宗 12년에 「諺解呂氏鄉約」을 간행 頒布한 바 있고, 趙靜庵 등은 中宗 14년에 향약의 전국적 시행을 도모하였으나 그 首倡者들이 己卯土禍의 참변을 당하게 되자 이것도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향약 실시의 要望은 다시 朱子學徒의 得勢와 더불어 높아갔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時宜에 맞게 꾸며지게 되었으니 이에 진력한 이가 바로 퇴계와 율곡이었다. 여기서는 퇴계가 明宗 11년에 고향인 禮安에서 鄉土와 더불어 상의하여 約定한 「鄉立約條」에 담긴 그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퇴계의 「鄉立約條」는 「鄉立約條序」와 「約條」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呂氏鄉約」이나 「朱子增損呂氏鄉約」과는 그 체재나 내용이 전적으로 相異하다. 「呂氏鄉約」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四大 기본강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퇴계의 그것은 極罰, 中罰, 下罰의 三大項目으로 나누어 「呂氏鄉約」중의 過失相規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중시하여 우리 나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鄉土에 適應하게 約條를 정립한 것 같다. 그리고 「朱子增損呂氏鄉約」과 비교하면 퇴계의 향약은 매우 간결하다. 다만 이것에는 朱子の 그것과는 달리 지극히 격

78) 「朱子大全」, 卷七十四.

조 높은 序文이 있어, 道統의 樞要와 인륜도덕의 高揚이 설명되어 있다.

퇴계는 그 序文의 冒頭에,

“옛날에 鄉大夫의 직책은 德行과 道藝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벌로써 규탄한다. 선비된 사람은 반드시 집에서 행실을 닦아 鄉中에서 드러난 후라야 나라에 등용되니, 이와 같음은 어째서인가. 孝悌와 忠信은 人道의 큰 근본이요, 집과 鄉黨은 실로 그것을 행하는 곳이다. 先王의 가르침은 이것을 重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법을 세우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후세에 이르러 法制는 비록 폐하였으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진실로 그대로 있으니, 어찌 고금의 마땅함을 참작해서 권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겠는가.”⁷⁹⁾

라고 하여 옛 鄉大夫의 職責은 德行道藝로써 사람을 인도하고 바로잡으며, 선비된 자는 반드시 修身 齊家하여 鄉中에서 들어난 뒤에 국정에 등용되는 것이니, 그것은 孝悌忠信이 원래 人道의 大本이고 집과 鄉黨이 그 실천의 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시골은 왕의 교화로부터 멀어서 孝悌忠信의 道와 禮義廉恥를 버리게 됨을 걱정하며,

“더우기 시골은 왕의 교화가 멀어서, 좋아하고 미워하여 서로 치고, 강하고 약하여 서로 軋轢하며, 혹은 孝悌忠信의 道가 저지되어 행하지를 못해서 禮義를 버리며 엄치를 버리기가 날로 심하여, 점점 夷狄 금수에 돌아가게 되니, 이것이 다 王政의 큰 걱정인데, 그 규탄하고 바로 잡는 책임이 鄉所에 돌아가게 되나니, 아아, 중하다 할 것이다.”⁸⁰⁾

79) “古者鄉大夫之職，導之以德行道藝，而糾之以不率之刑，爲士者亦必修於家著於鄉而後，得以賓興於國，若是者何哉，孝悌忠信人道之大本，而家與鄉黨實其所行之地也，先王之教以是爲重故，其立法如是，至於後世法制雖廢，而彝倫之則固自若也，惡可不酌古今之宜，而爲之勸懲也哉。”（「退溪全書」，上，pp.941~942.）

80) “況鄉俗之間遠於王靈，好惡相攻強弱相軋，使孝悌忠信之道，或尼而不行則棄禮義損廉恥，日甚流而爲夷狄禽獸之歸，此實王政之大患也，而其糾正之責乃歸之鄉

라고 하여 시골에 있어서 王政의 大患을 糾正하는 것은 鄉里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했다. 퇴계는 龔巖 李賢輔의 遺志를 계승하여 다음과 같은 緣由와 절차로 이 「約條」를 완성하게 되었다.

“故崇政知事 龔巖先生이 이리함을 근심하여 일찌기 約條를 세워서 풍속을 격려하고자 하였으나, 鄭重하여 여기에 미치지 못하더니, 지금 知事의 여러 아들들이 방금 境內에서, 居喪하고, 滯 역시 병으로 전원에 돌아와 있는데, 고을 어른들이 다 우리들 몇 사람으로 하여금 속히 선생의 뜻을 이룩하라고 맡기고 책임지움이 심히 지극하여 사양했으나 마치 못하여 이에 서로 함께 의논하여, 그 대강만 들어서 이같이 하고, 다시 고을 사람에게 두루 보여 그 可否를 살핀 연후에 정돈이 되었으니, 거의 영원하도록 행하여도 폐단이 없을 것이다.”⁸¹⁾

퇴계는 매우 장황한 序文과는 대조적으로 「約條」는 지극히 간결하게 기록하였다. 罰則은 三等級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全文을 通覽해 보면, 孝悌之道에 반하는 자를 極罰에, 친족이나 鄉黨間의 불화를 조성하거나 풍기를 문란케 하고 향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에게는 中罰을, 그리고 향리의 公會에서 질서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下罰에 처하도록 하였다.⁸²⁾

所, 嗚呼其亦重矣.”(同書, p942.)

81) “故崇政知事龔巖先生, 患是然也, 嘗欲爲之立約條, 以厲風俗, 鄭重而未及焉, 于今知事諸胤方居喪境內, 滯亦守病田間, 鄉丈皆欲令我輩數人, 遂成先生之志委責甚至, 辭不獲已乃相與商議, 而舉其梗概如此, 復以偏示鄉人而審可否然後乃定, 庶幾期行於久遠而無弊也.”(同上)

82) 「約條」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父母不順者(不孝之罪邦有常刑故姑舉其次) 兄弟相鬪者(兄曲弟直均罰, 兄直弟曲止罰弟, 曲直相半兄輕弟重) 家道悖亂者(夫妻歐罵黜其正妻妻損逆者減等男女無別嫡妾倒置以妾爲妻以孽爲嫡嫡不撫孽孽反陵嫡) 事涉官府有關鄉風者. 妄作威勢擾官行私者. 鄉長陵辱者. 守身孀婦誘脅汚奸者. 已上極罰(上中下) 親戚不睦者. 正妻疏薄者(妻有罪者減等) 隣里不和者. 儕輩相歐罵者. 不顧廉恥汚壞土風者. 恃強陵弱侵奪起爭者. 無賴結黨多行狂悖者. 公私聚會是非官政者. 造言構虛陷人罪累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受官差任憑公作弊者. 婚姻喪祭無故過時者. 不有執綱不從鄉令者. 不伏鄉論反懷仇怨者. 執綱徇私冒入鄉參者. 舊官餞亭無故

「鄉立約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朱子學者인 퇴계가 朱子の 향약과는 그 체재나 내용을 전적으로 달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른바 「朝鮮的鄉約」을 출현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진력한 이”⁸³⁾라 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特記해야 할 것은 「約條」의 제정과 실시에 있어서 퇴계가 취한 방법과 발상인 것이다. 즉 成案된 「約條」의 梗概를 「復以偏示鄉人，而審可否，然後乃定，庶幾期行於久遠而無弊也“라고 한 바와 같이, 이것을 널리 鄉人에게 두루보여 그 可否를 살피고, 그런 연후에 이를 확정하여 실시한다고 한 점이다. 이러한 자세는 특징인이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권위주의적 수직적 규제 방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鄉人의 可否 의견을 청취하고 鄉黨合意下에 확정하여 자치적으로 相規하려는 수법과 발상으로서, 이것은 소박하나마 분명히 하나의 민주적인 자치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朱子の 향약이나 율곡의 그것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퇴계향약의 특징이다. 퇴계향약은 孝悌忠信과 禮義廉恥라고 하는 彝倫에 바탕하여 鄉人들의 修身 齊家를 勸導하고, 鄉黨合意의 自治相規에 의해 鄉隣相和하고, 나아가 國治와 平天下를 성취코자 하는 고차적인 정치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6. 「甲辰乞勿絕倭使疏」에서 주장한 和解交隣의 平和外交

이 疏는 甲辰年 즉 中宗 39년에 올린 것으로 되어 文集에도 「甲辰乞勿絕倭使疏」로 기재되어 있으나,⁸⁴⁾ 사실에 있어서는 明宗 즉위 직후 明宗에게 올린 것으로서 年譜에는 퇴계가 45세 때인 乙巳年 7월로 명기되어 있으며,⁸⁵⁾ 「退溪文集攷證」에서는 乙巳年秋로 고증하고 있다.⁸⁶⁾

不參者. 已上中罰(上中下) 公會晚到者. 紊坐失儀者. 座中喧爭者. 空坐退便者. 無故先出者. 已上下罰(上中下) 元惡鄉吏 人吏民間作弊者. 貢物使濫徵價物者. 庶人陵蔑士族者.” (同書, pp. 942~943.)

83) 金龍德, “鄉約과 鄉規”, 韓國思想研究會, 「韓國思想叢書」, VIII(서울, 泰光文化社, 1980), p.46

84) 「退溪全書」, 上, p.167.

이미 앞에서 퇴계 當世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나라 주변으로부터의 외침은 주로 南倭 北胡의患으로서 이것은 매우 고질적인 것이었다. 朝廷에서는 三浦倭亂후 倭人이 누차 지난 일을 사죄하고 화친을 청해 왔으나 번번이 이를 거절해 버렸다. 그런데 倭國은 甲辰年 5월에 다시 화친을 청해 왔다. 이 해 11월에 中宗이 승하하고, 뒤를 이은 仁宗도 즉위한지 일년 미만에 세상을 떠나, 乙巳年 7월에 다시 明宗이 즉위하게 되는, 국내사정이 다사다난하였다. 이러한 때에 퇴계의 외침을 근심하는 우국충정에서 이 疏文을 올린 것이다.

朝野가 모두 倭國과의 화친을 반대하는 판국에 퇴계는 그의 인간관, 夷狄觀, 외교철학을 고금의 역사적 사실과 聖王들이 취한 對夷狄方策 등을 참고하여 지성으로 설파하면서 화친의 당위성과 실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먼저 夷狄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제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에 夷狄禽獸라고 한꺼번에 말하는데, 저 夷狄이란 역시 사람인데 이를 곧 금수에 견주는 것은 굳이 심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이적이 예의를 알지 못해서 군신간에 상하의 분별이 없고, 또 그들의 생활이 무지하고 미련하며 사리에 어둡고 완고하여 지각이 없어서 거의 금수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들은 금수와 같은 종류로 並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수를 금수로 기른다면 금수들은 그 본성대로 살고, 夷狄을 이적으로 대접하면 이적들은 각기 그 분수에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王者는 이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春秋의 筆法에는 夷狄에 대해서 오는 자는 막지 않고, 가는 자는 붙잡지 않아,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써 다스리는 것이니, 이것이 곧 깊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⁸⁷⁾

85) “七月, 仁宗昇遐, 明廟卽位, 上疏請許倭人乞和.” (『退溪全書, 上, p.579.)

86) “案年譜言行錄及疏中大意, 皆是乙巳秋事, 甲辰字恐誤.” (同書, p.1117.)

87) “人有恒言, 皆曰夷狄禽獸, 夫夷狄亦人耳, 乃比於禽獸者, 非固甚言之也, 爲其不知禮義, 無君臣上下之分, 而其爲生也, 蚩蚩蠢蠢, 冥頑不靈, 殆與禽獸無異故, 取類而並稱之爾, 故以禽獸畜禽獸, 則物得其性, 以夷狄待夷狄, 則夷安其分, 故, 王者不治夷狄, 春秋錄戎來者不拒, 去者不追, 治之以不治者, 乃所以深治之也.”

라고 하여 以夷狄待夷狄하고 來者不拒하며 去者不追하는 治之以不治라고 하는 通和修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국내의 諸般 어려운 사정과 좋지 못한 징조가 있음을 간파하고 外禍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간청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天變이 하늘에 나타나고, 나라의 운수가 어렵고 꼭 막혀서 근본이 불안하고 변방이 허술해서 군사는 부족되고 糧食은 다 떨어졌으며 인민은 원망하고 신은 노하니, 이것이 우리 나라의 어느때 이렇듯 위급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대개 太白星이 대낮에 보이는 것은 곧 兵亂이 일어날 상입니다. 신이 듣자오니, 비록 옛 聖帝나 明王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 禍亂이 오지 않을 것을 능히 기약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禍亂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스스로 자기 쪽에서 禍亂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요, 그 禍亂이 기왕 닥쳐온다면 대처할 준비가 있도록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할 뿐입니다. 이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닦아서 天變에 대응하고자 해야만 할 터인데, 섬나라 오랑캐의 來朝하는 희망을 끊으려 하니 이것은 스스로 우리 쪽에서 禍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⁸⁸⁾

이와 같이 그는 국내의 정세를 감안한다면 倭人の 乞和를 聽許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와 방침을 서술하고 있다. 그 요점을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東南地方은 穀物이 나오고 병력이 있는 곳으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 ② 왜인의 請和는 국가의 大赦를 핑계하여 허락해야 한다는 것. ③ 東南地方을 안전하게 해 두면 北胡의 방어에 전념할 수 있어 좋다는 것. ④ 만일 왜인이

(「退溪全書」, 上, p.167.)

88) “當今天變現於上, 人事闕於下, 大禍重疊國運艱否, 根本○陷邊圉虛疎, 兵耗糧竭民怨神怒, 此吾東方何等時耶, 夫太白晝見, 乃兵興之象, 臣聞雖古之聖帝明王, 亦不能必其禍難之不來, 但當其未來則, 無自我致之之道, 及其既來則, 有可以應之之備, 如斯而已, 今欲修人事以應天變, 而絕島夷來朝之望, 是可謂無自我致之之道乎.” (同書, pp. 168~169.)

背信 謀反하여 무력으로 싸움을 걸어 온다면, 이는 우리 쪽의 책임이 아니요, 이에 대응하는데 萬全을 기할 것. ⑤ 화친은 하되 방비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 ⑥ 예로써 倭人을 대하는 것은 좋으나 추켜 주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⑦ 糧穀과 弊帛으로 왜인과 情宜를 맺어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좋으나 끝없는 요구를 따라 뇌물을 지나치게 늘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 ⑧ 속담에 <얼러 기른 자식이 어미를 꾸짖는다>고 한 바와 같이, 자식이 오만하게 됨은 어버이에게도 미리 단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든 잘못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며, 그러므로 미리 단속함이 중요하다는 것. ⑨ 외교는 결코 사사로운 일이 아니며, 명분과 義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끝으로 퇴계는 왜인과의 화친의 문제는 국가사직 백년의 우환과 관계되고, 億萬生靈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이라하여 말하기를,

“이 일이 백년 사직의 근심이 되고, 億萬生靈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 엿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이 글을 慈殿께 稟하시고 또 조정에 있는 신하들과 널리 의논하시와 냉정하신 마음으로 얹은 말씀을 살피주셔서 절충하여 처리하신다면, 어리석은 신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곧 宗廟 사직의 다행이옵니다.”⁸⁹⁾

라고 하였다. 당시대는 거둬진 사회로 관인이나 사림이나, 모두가 처신하기에 어려울 때이며, 퇴계 자신도 그 화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의 각오로 조야가 다 이를 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는데도 그는 그의 확고한 외교철학에 입각하여 왜인과의 화친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퇴계의 이 疏文은 이로부터 미쳐 50년도 되기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宣祖 25年, 1592)을 이미 예측이라도 한 遠見之明이라고 하겠다. 그

89) “以爲此事關百年 社稷之憂，係億萬生靈之命，…… 伏願 殿下以臣此章，稟于 慈殿，而更博謀於在廷之臣，虛心而察邇，折衷而審處之則，非愚臣之幸，乃 宗社之幸也。” (同書, pp. 169~170.)

때 朝廷에서 이 疏請을 받아들여 왜인과의 교린정책을 세우고, 한편 울곡의 「十萬養兵說」을 받아들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했다라면 壬亂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선견지명을 가진 두 巨儒의 進言은 묵살 되어 마침내 국운을 크게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다.

IV. 결 론

이상에서 粗略하게나마 퇴계의 정치사상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퇴계의 일생은 학문과 관직생활이 병행되기는 했으나, 그는 정치가나 관료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주자학자였다. 그는 소위 四大士禍의 過中에서, 그리고 南倭 北胡의 외환이 滋甚하던 때에 벼슬을 하고, 학문을 하고, 생애를 보내야 했다. 영남의 학풍과 전통속에서 성장한 그는 爲己之學에 진력한 성리학자로서 우리 동방에 孔孟程朱의 도를 천명한 사람이다. 修己治人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유학자인 그의 정치사상은 格致誠正과 修齊治平을 강목으로 하는 덕치의 경세철학이다. 그의 정치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주요 疏劄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그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① 50여회에 이르는 수많은 사직願 중에서 특히 「戊午辭職疏」와 「戊辰辭職疏」를 통해 보면, 정치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 공직자는 무엇보다 의리와 염치를 존중해야 하며, 적재적소의 賢能에 의한 정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② 그의 文蹟 중에서 가장 정치적 견해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戊辰六條疏」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 조목은 彝教에 근면하여 性道에 근본하고, 聖賢을 중주로하여 유학에 바탕한 修己治人の 도덕정치의 이상을 역설한 것이다.

③ 「戊辰經筵啓劄」에서는 民爲邦本임을 강조하고, 保民安邦할 것과 大中至正하며 至公無私한 中道정치를 제시하였다.

④ 「聖學十圖」에 담겨진 것은 聖學 즉 유학의 근본원리와 수행방법을 총망라해서, 이를 체계화하여 정치실용에 소용되게 하고자 한 것으로서, 군주는 聖王을 배워 內聖外王의 덕을 갖추고 先王之道에 따라 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⑤ 「鄉立約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그 체제나 내용과 제정방법에 있어서 다른 향약과는 매우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孝悌忠信과 禮義廉恥라는 彝倫에 바탕하여 鄉人들의 修身齊家를 勸導하고, 鄉黨合意에 의한 자치적인 相規로 鄉隣相和하여 治國과 平天下를 성취코자 하는 고차적 정치사상이다.

⑥ 「甲辰乞勿絕倭使疏」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인간관, 夷狄觀, 그리고 외교철학을 고금의 역사적 사실과 聖王들이 취한 對夷狄方策 등을 참고하여 왜인과의 화친의 당위성과 실리성을 설파한 것이다. 以夷狄待夷狄하고 來者不拒, 去者不追하는 治之以不治라고 하는 通和修好的 기본정신에 입하여 平和交隣을 力論하고 있다.

퇴계의 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 修己治人, 精一執中, 內聖外王이라고 하는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정치, 中道政治, 그리고 왕도정치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의 根本義를 存心에 추구하여, 修己와 治人の 連續性을 認定은 하면서도 그 重點은 언제나 修己에 두고 있었다.

현대사회에는 분열과 대립, 갈등과 모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간의 소외, 인간상실의 현상이 深化一路에 있다. 이것은 실로 위기의 시대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와 윤리는 분리되어 윤리보다 법률이나 제도의 형식적인 정비와 정치의 기술적인 책략과 기교에만 치중 발달하고, 통치자의 인격이나 덕행의 수련과 도의적인 자각이나 실천은 등한시되고 있다. 현대의 인류가 처해 있는 시대적 위기의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치 즉 윤리라고 보고, 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도덕성을 강조하는 유교의 정치윤리는 현대정치가 안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귀중한 역할을 擔當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퇴계의 정치사상은 한국의 새 정치문화 정립에 매우 시사적인 의의를 가지리라 믿는다.

이 논문은 다만 하나의 문제제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이라 하겠고, 위에서 말한 시각에서 앞으로 더욱 본격적인 연구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퇴계와 율곡, 퇴계와 주자의 정치사상을 비교연구하는 것은 흥미있고도 유익한 작업이 될 것이다. 유교이념이나 민주주의의 이념에 있어서는 함께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란 기본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퇴계의 정치사상과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이념과의 관계도 探討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것이다.